

2018년 7월 29일,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댁, 이현정 조사.

이옥선(여, 1938년생, 제주시 도두1동)

-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

- 줄거리: 애월읍 상귀리(소앵이)와 하귀리(예동산) 사람들은 황다리궤당이란 본향을 모신다. 황다리궤당에는 할망신과 하르방신이 좌정하여 있는데, 당이 매우 세기 때문에 딸을 낳게 되면 당과의 인연을 끊기 위하여 당에 축원하지 않는다. 매해 정월 초이레에 황다리궤당에 제를 지내는데, 어느 날 제를 지내던 양사만이란 심방이 제관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벌을 주려 한다는 공수를 내렸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돌이 굴러와 제관을 서던 한 남자가 죽고 말았다. 이 남자는 제관으로 나서면서 몸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자] 할머니, 도두에서는 당 안 다년마씨?

[제보자] 당 뎡인다 여기, 우린 안 뎡겨.

[조사자] 여기 신은 어떤 신이렌 헤마씨?

[제보자] 여기 신은 모르켜, 저기 여기는 당답질 안허여. 근디 저 소왕이, 상귀허고 소왕이허고 예동산허고 뎡이던 당은 저 소왕 잇인다, 예동산서 흙땀 내려오민 가문 어마장장 헤여.

[조사자] 거긴 어떤 신 모사마썸?

[제보자] 거긴 어떤 여즈 할망이 본향신인다. 하르방은 고기 먹곡 허니까 부정헤연 담 박이 모성 잇어. 게난 할망부떠 강 모셔 놔그넝에 궤 모상 빌어놔, 하르방신디 궤 모사놔. 경허고 너무 췌어 부니까 똥은 나민 거기 안 빌어. 똥은 안 올려. 왜 안 올리냐믄 똥을 잡아뎡경 경 꼭 받아먹젠 좁아뎡긴덴, 거기 다녀야 똥덴. 게부난 똥은 나민 안 올려. 우리도 나서도 거기 우리 올린 빌지 안헤연, 우리 뎡겨 봤주만은.

강 보민이 당이엔 현디 제주도 안에서 그 당이 제일 으리으리헐 거여. 강 보민 싹 뎡풍친 거?씨 막 돌려지고이 돛박낭덜토 이 우로 잇고이.

엄청 옛날에는 정월 보름, 저 초일월 날은 거기 제드리멍 굿헤여 심방덜이, 막 굿허민 동네에서 문딱 밥 허멍이. 그때 옛날은 어려울 때난, 메 헤영 강으네 올령 빌었주. 이제 축원헤 주민 그레 밥 걸여 놔두곡 또 판 사름 거 올령 허곡. 하루종일 헤여 굿을. 경허는디 거기는 하여튼 정성이 안 들엉은 안 뉘는다. 혼번 우리 어릴, 혼 열 뗏 살은 뉘 거라. 굿허는디 초감제를 허니까.

아이고, 동쪽 무슨 기와집 무슨 헌 데서 이제 부정헛젠. 여기 제관덜이 부정헛젠 이제 벌을 주켄 헛젠 헛게. 아닌 게 아이라 거기서 돌 굴러 왕 탁허게 못안. 이 알에 잇당 그 제관 혼 사름 못앙 거기서 즉사헤연, 굿허는 중에. 그 심방이 초감제헌 때 말헤연. 경헤연 그 사름이 왜 그랬냐 허니까. 그날 저녁이 판 여즈 허고 줌 자서 왔데 그날 제관이. 뉘날 아침이 왕 제관 뉘 사름이 막 부정헛젠.

심방이 시커멓헛 굿허더렌 허난. 게난 봐났어, 우리가. 겐 그 사름 죽엇어. 옛날에는 저 향파두리 사는 심방이라 양 뉘이라 낫인가, 양스만이. 막 잘난 사름이라 심방이라도.

[조사자] 정확히 어느 당인지 알아지쿠과, 말허는 게.

[제보자] 황다리괘. 우리 저 황다리괘 예동산더레 가당 중간이라, 중간인다. 거기 전설이 많은 디주. 그기도.

- 핵심어: 황다리괘당, 소왕이(소앵이), 예동산, 본향신, 고기, 부정, 제관, 돌, 즉사, 할망(할머니), 하르방(할아버지), 심방(무당)